

정답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⑤	06 ③	07 ③	08 ③	09 ②	10 ①
11 ⑤	12 ④	13 ①	14 ①	15 ⑤	16 ①	17 ④	18 ②	19 ④	20 ⑤
21 ④	22 ③	23 ④	24 ⑤	25 ①	26 ②	27 ②	28 ②	29 ②	30 ⑤
31 ④	32 ③	33 ③	34 ②	35 ⑤	36 ④	37 ⑤	38 ③	39 ②	40 ③
41 ①	42 ②	43 ④	44 ⑤	45 ④					

출제 문항 분석

문항	배점	제재	출제 의도
1	2	화법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2	3	화법	세부 정보 파악하기
3	2	화법	조건에 맞게 말하기
4	2	화작 통합	담화의 특성 이해하기
5	2	화작 통합	대화 내용 파악하기
6	2	화작 통합	글쓰기 전략 이해하기
7	2	화작 통합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8	3	작문	초고 반영하기
9	2	작문	내용 조직 방법 이해하기
10	2	작문	초고 수정하기
11	2	문법	담화 표현 이해하기
12	2	문법	높임 표현 이해하기
13	2	문법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이해하기
14	3	문법	안은문장의 통사적 특성 이해하기
15	2	문법	조사 이해하기
16	2	인문	서술 방식 파악하기*
17	2	인문	내용 이해하기
18	2	인문	내용 추론하기
19	2	인문	내용 이해하기
20	3	인문	사례에 적용하기
21	2	인문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22	2	현대시	표현상의 특징과 기능 이해하기
23	2	현대시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24	3	현대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25	2	기술	중심 내용 파악하기
26	2	기술	세부 내용 이해하기
27	2	기술	내용 추론하기
28	3	기술	사례에 적용하기

문항	배점	제재	출제 의도
29	2	사회	세부 내용 이해하기
30	2	사회	핵심 내용 이해하기
31	3	사회	내용 추론하기*
32	2	사회	사례에 적용하기
33	2	사회	문맥상 바꿔 쓰기
34	2	현대 소설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35	2	현대 소설	소설 속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36	2	현대 소설	맥락의 의미 파악하기
37	3	현대 소설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38	2	고전 시가	표현상 특징과 정서 파악하기
39	2	고전 시가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40	3	고전 시가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41	2	고전 소설	특정 인물 파악하기
42	3	고전 소설	일반 영웅 소설과의 공통점 파악하기
43	2	고전 소설	작품 간 비교하기
44	2	고전 소설	인물 간 갈등 양상 이해하기
45	2	고전 소설	갈래별 특징 파악하기

\* 신유형 문제

\*\*\* 출제 가능 문제

## ❖ 출제 경향

이번 6월 국어 모의평가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되었다. 영역별로는 화법·작문·문법 15문제, 독서 15문제, 문학 15문제가 출제되었다.

화법과 작문은 단독으로 각각 3문제씩 출제되었고, 화법과 작문 통합 문제가 4문제로 출제되었다. 그리고 문법 영역은 담화의 형식적 장치,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지문으로 활용하여 2문항 세트 문제로 나왔고, 문법 5문항 모두 작년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보다 대체로 쉽게 출제되었다.

독서 영역은 인문, 기술, 사회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짧고 전년 대비 쉽게 출제되었다. 다만, 이번 시험에서는 독특하게 16~21번 인문 지문이 한 소재에 두 지문으로 나와 독서 지문에 대한 형식 변화를 보였다. 또한 31번에 제시된 특허 법률 관련 문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문제 역시 까다롭게 출제되어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학 영역에서는 조지훈의 시 ‘산상의 노래’와 손택수의 시 ‘나무의 수사학 1’을 묶어 3문항이 출제되었고, 정철의 가사 ‘관동별곡’을 지문으로 3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현대 소설은 성석제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로 4문항이 출제되었다. 갈래 복합 지문으로는 고전 소설 ‘전우치전’과 최동훈의 시나리오 ‘전우치’를 묶어 5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번 문학 영역에는 특히 고전 시가 작품으로 EBS 연계 지문이 아닌 ‘관동별곡’이 출제되어 미리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문 이해나 해석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 외 다른 작품의 경우 본문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 ❖ 학습 대책

이번 모의평가는 신유형의 문제도 배치되었고, 지문에 형식적인 변화도 보였지만 작년 수능 및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이번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학습 대책을 마련해 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역을 불문하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EBS와 연계된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남은 기간 『수능완성』이나 『수능특강』 등의 EBS 교재를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문법과 문학 영역을 공부하고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고난이도 독서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독서의 경우에는 이번에 지문에 형식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글을 구조적으로 읽어가며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심 문장 및 핵심 소재를 반드시 체크해 가며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번 31번 문제와 같이 어려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제재에 대해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화법과 작문 영역이 EBS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하여 이를 독서 지문으로 바꾸는 연습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학의 경우,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작품과 관련된 작품들 중 EBS 외의 다른 작품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 [분석 동영상 보기]

이번 시험의 분석 동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03] (화법)

## 1 |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정답 : ①

학생은 연설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떠올려 봅시다’, ‘동참합시다’ 등의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②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 위기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3문단에서 연안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 주는 2018년 정부 통계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③ 3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연안 생태계가 산림보다 흡수 능력이 탁월하다고 밝히고 있다.
- ④ 1문단의 첫 문장에서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떠올려 보자고 하여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 ⑤ 연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지구의 보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2 | 정보의 세부 내용 확인하기

정답 : ⑤

학생이 연설의 2문단에서 우리나라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다고 언급했지만, 연안 생태계 보호가 그러한 기존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3문단의 셋째 문장에서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했고, 4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그들은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2문단의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 ③ 3문단에서 연안 생태계가 산림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흡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밝히고 있

으므로 적절하다.

- ④ 4문단의 넷째 문장에서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 | 조건에 맞게 말하기

정답 : ④

㉠에서는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도 북극곰처럼 지구 온난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힘쓰자고 친구들을 설득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우리도 북극곰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우리도 북극곰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블루카본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아니므로 연설문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 ③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산림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므로 위 연설의 취지에 공감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⑤ 우리도 북극곰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산림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므로 위 연설의 취지에 공감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04~07] (화법, 작문 통합)

## 4 | 담화의 특성 이해하기

정답 : ③

(다)는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므로 글의 작성자와 글을 읽는 사람들이 같은 시공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는 학생들의 대화이므로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학생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므로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글이고, (다)는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건의문이다. (가)와 달리 (다)에서는 격식을 갖춘 상대높임 표현인 하십시오

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다)는 줄임말을 쓰지 않고 본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어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 ④ 동일한 내용을 표현할 때 (다)와 달리 (나)에서는 ‘에’와 ‘가’ 등의 조사를 생략하여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므로 문어 상황이라는 점은 (다)와 같지만, (나)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5 | 대화 내용 파악하기

정답 : ⑤

‘학생 2’는 [A]에서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했고, [B]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만들 필요는 없잖아?’라고 하였으므로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앞서 말한 ‘학생1’의 의견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발화를 들은 뒤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2’의 생각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를 재진술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지도 않다.
- ③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여 자기만의 차별성을 부각한 게 아니라, ‘댓글을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를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했으므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한 말을 요약하지 않았고, 그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 6 | 글쓰기 전략 이해하기

정답 : ③

(다)의 ㉠에서는 우리 지역의 등교 시간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 주는 경찰서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보기>의 둘째 문장에서 ‘이성적 설득 전략’의 예로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를 들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② ㉢에서 필자의 경험과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④ ㉣에서는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했지만, 그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히지는 않았다. 불가피하게 자가용 등교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인정하자고 한 것이다.
- ⑤ ㉤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의 상황은 자가용 등교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다. ㉥은 현재의 상황을 바꿈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 7 |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 : ③

(다)의 4문단에서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자고 하였다. 불가피한 경우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므로,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다)의 둘째, 셋째 문장에서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다)의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학교 앞 도로가 유난히 좁아서 횡단보도에 정치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하다고 서술하였다.
- ④ (다)의 5문단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새로운 아침 풍경을 만들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된다고 서술하였다.
- ⑤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주변을 살피며 걸어 주세요.’라는 명령문의 형태로 독자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 [08~10] (작문)

### 8 | 초고 반영하기

정답 : ③

(나)의 자료 선별 기준은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자료3>은 출처가 □□병원의 보고서로 명확하지만 2004년 발행한 자료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나)의 선별 기준인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가’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나)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자료3>이 섭취 실태를 보여 주기에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선별기준 (가)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나)의 선별 기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로 선별된 자료가 초고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자료1>은 전문가가 권하는 물 섭취 방법으로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에 작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자료2>의 물 중독 사례의 경우 학생들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작문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자료4>는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에 관한 자료로 물 섭취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작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자료4>는 환경부 연례 보고서로 출처가 분명하지만 해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연도를 고려했을 때 최근 현황에 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나)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적절하다.

**9 | 내용 조직 방법 이해하기**

정답 : ②

‘초고’의 1문단에서는 물의 인체 내 역할 제시하면서 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물의 인체 내 역할의 인과 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1문단은 물 섭취에 대한 인식을 묻고 답하는 구조로 제시하여 있다.
- ③ 2문단에서는 물 중독 증상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며 제시하고 있다.
- ④ 3문단에서는 물 섭취에 대한 실험 방안에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3문단에서는 물 섭취에 대한 실험 결과가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10 | 초고 수정하기**

정답 : ①

친구는 초고의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두 가지 유의 사

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하고 그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언급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물을 적당한 양을 필요한 때에 마셔야 좋은 것이다’를 통해 두 가지 유의 사항(단시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점과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과제 수행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물 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에서 독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가치가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한 가지 유의 사항만(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과제 수행능력이 뛰어나다) 포함된 문장을 추가하였다.
- ③ 한 가지 유의 사항만(단시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안 된다) 포함된 문장을 추가하였고 그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 ④ 두 가지 유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했으나 그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⑤ 두 가지 유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하지 않았다.

**[11~15] (문법)**

**11 | 담화 표현 이해하기**

정답 : ⑤

- ㉠ ‘거기’는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지시 표현’은 담화의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인데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며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주제에서 벗어난 발화이므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② ㉡ ‘거기’는 영선이 말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 ③ ㉢ ‘여기’, ㉣ ‘거기’는 동일한 장소인 해수욕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 ‘그리고’는 발화와 발화를 대등하게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다.

12 | 높임 표현 이해하기

정답 : ④

‘드리고’는 서술어의 대상인 객체,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께서’는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격 조사이다.
- ② ‘께서’는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특수 동사이다.
- ③ ‘-구나’는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화자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종결 어미이다.
- ⑤ ‘-렴’은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종결 어미이다.

13 |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이해하기

정답 : ①

아버님은 유정물이지만 존칭의 대상이므로 ‘의’가 아니라 ‘스’를 사용해야 한다.

14 | 안은문장의 통사적 특성 이해하기

정답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운동하기가’가 명사절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그것을’은 명사절이 아니다.
-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이 서술어인 문장은 관형절로 뒤에 오는 ‘계획 세우기’와 성분이 동일하여 ‘주어’가 생략되었다.
-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은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15 | 조사 이해하기

정답 : ⑤

㉠의 ‘보다’, ㉢의 ‘밖에’, ㉣의 ‘만큼’은 모두 체언 뒤에 붙여 써야 하는 조사이다. 하지만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 ‘뿐’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6~21] (인문) 과거제

【지문 해설】

• 해제

(가) 공정성을 지닌 과거제는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도 증대시켰다. 또한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 지식인 집단의 형성, 도덕적 가치기준에 대한 공유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다. 과거제는 사회적 안정 및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하여 유럽의 계몽사상가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나) 과거제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형식적 학습, 인재들의 재능 낭비, 인성이나 실무 능력 평가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많았다. 또한 과거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를 내고자 했고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도 약했다. 따라서 세습이라는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개선하자는 주장은 복고가 아니라 제도 보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 주제

- (가) 과거제의 긍정적 기능
- (나)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대두된 이유

16 | 서술 방식 파악하기

정답 : ①

(가)는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나)는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부정적 효과를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지 않았다.
- ③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여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 ④ (나)에서는 과거제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선호와 비판의 근거를 비교하지 않았다.
- ⑤ (나)에서 유형원, 고염무, 황중희와 같은 학자들은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상반된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17 | 내용 이해하기

정답 : ④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쟁적 선발 제도는 그 경쟁에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 관

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과거제가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③ (가)의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의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 내용 추론하기**

**정답 : ②**

㉠은 과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검증을 거친 지방관들에게 세습의 길까지 열어주자는 내용이다. ㉠과 같은 제안은 과거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과거제의 부작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정답이 된다. 3문단에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에게서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들이 봉건적 요소를 지향했다는 것은 제시문에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근무지가 자주 바뀌어 소속감이 약한 것은 과거제의 부작용에 해당한다.
- ③ 과거제로 임용된 관리들이 세습 엘리트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개인적 동기가 강하다는 내용은 3문단에서 찾을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과거제로 임용된 관리들이 출세 지향적 이어서 장기적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단기적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 ⑤ 3문단에서 능력주의적 태도가 관리의 업무 평가에도 적용되면서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다고 하였다.

**19 | 내용 이해하기**

**정답 :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시험 과정에서 ㉠을 위한 장치를 도입한 것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과거제가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주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은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장한 과거제에 대한 회의이다. 따라서 ㉡이 관리 선발 시 됴됨이 검증의 곤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2문단에 의하면 과거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과거제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한 것은 아니다.
- ②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온 것은 과거제의 효과이지, ㉠의 효과가 아니다. 그리고 ㉡은 익명성으로 인해 인성이나 실무 능력 평가가 힘들다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 ③ ㉡은 익명성으로 인해 인성이나 실무 능력 평가가 힘들다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과거제는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낸 것이지,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한 것은 아니다. ㉡은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20 |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 ⑤**

(나)의 2문단에 의하면 과거제는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은 과거제와 무관한 방식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과거제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가지게 됴으로써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했다.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의 갑은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어 불만이 해소되었으므로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에 주목하고 있다.
- ② (나)의 2문단에서 치열한 경쟁이 인재들의 재능 낭비를 낳았다고 지적하였다.
- ③ (다)의 3문단에서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이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고 하였다.
- ④ (나)의 2문단에서 과거제의 치열한 경쟁이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위한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 21 |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 ④

㉔와 ㉔의 ‘매달리면’은 ‘어떤 일에 관계하여 거기에 만 몸과 마음이 쏠려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㉔는 ‘일정한 곳에 놓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㉔는 ‘잊었던 감정이나 기억, 기분 따위가 다시 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㉔는 ‘가로질러 걸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㉔는 ‘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2~24] (현대시) (가)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나)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지문 해설】

(가)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해제 : 이 작품은 광복 후 민족의 미래를 고고한 태도로 모색하는 지사적 풍모를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광복의 기쁨 가운데, 수난을 겪었던 과거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성찰하고 있다. 절제된 어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 주제 : 광복의 기쁨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모색

(나)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해제 : 이 작품은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면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 시이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다.
- 주제 : 도심 속 가로수를 통해 느끼는 도시 이주민의 삶

## 22 | 표현상의 특징과 기능 이해하기

정답 : ③

(가)는 아침을 맞아 자기 영혼의 촛불이었던 ‘셋별’(‘셋별’은 ‘어둠’ 속에 날개를 떨던 존재에게 ‘숨으라’고 말하며, ‘사슴과 토끼’에게는 다시 찾게 된 양식인 ‘싸릿순’을 양보하며 나누어 가지라고 한다. 명령형의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셋별’, ‘사슴과 토끼’)의 행동(‘숨어라’, ‘사양하라’)을 유도하고 있다.

(나)는 ‘꽃이 피었다’, ‘가르친 것이다’, ‘참을 수 없다’, ‘푸르다’와 같은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도심 속 가로수가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에서 밤에서 아침으로의 시간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 가로수를 관찰한 풍경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 있으나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에서 자연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침을 맞는 상황의 기쁨이 드러내고 있으나 자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는 벌이 뽕뽕거리고 벌레들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나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④ (가)는 인격화된 사물들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으나 이 사물을 청자로 설정하지 않았다. (나)에서 가로수가 인격화된 존재로 설정되어 있지만 청자로 설정되지도 않았고 가로수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에서 도치된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 도치된 표현이 드러나 있지만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23 |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정답 : ④

[A]에서 화자는 산마루에서 생명력의 회복을 간구하며 ‘긴 밤’을 보내고 있고, [B]에서는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산마루에서 밝은 미래를 소망하고 있다. 화자는 [A]에서 [B]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어둠’ 속에 날래(날개)를 떨던 셋별은 이제 아침이 밝았으니 새벽과 함께 제자리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향기로운 싸릿순’은 사슴과 토끼가 다시 찾게 된 양식을 서로 양보하며 나누어 가지라고 말한다. 결국 ‘나래 떨던 셋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이 아니라 [A]에서 [B]로의 이행과정에서 제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 존재, 다시 찾은 과거의 양식을 나타내므로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

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A]의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밤’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의 고통과 생명력의 상실이다. 하지만 [B]의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은 생명력이 회복되고 밝아진 아침에 바라는 미래이다. [A]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와 [B]에서 화자의 기다림의 대상은 다르다.
- ② [A]에서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억압된 상황에서의 과거의 고통을, [B]에서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현재의 맑은 바람 속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시어라고 볼 수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과거의 부정적 상황은 현재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긴 밤’이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서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표출하고 있다. [B]의 ‘노래’는 5연의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24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의 치욕이 비판적으로 표현된 구절이다. ‘치욕으로 푸르다’를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보기>에서 화자는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 대한 동질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므로,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내성은 ‘환경 조건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생물의 성질’로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고 있다고 이해된다.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가로수가 꽃을 피우며 참

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의 환경이다.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

[25~28] (기술) 영상 안정화 기술

【지문 해설】

- 해제 : 디지털 카메라 촬영 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인데,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과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 등이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은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여 작동되고,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제어장치에 전달하고, 제어장치가 렌즈를 이동시켜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 보이스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렌즈 주위의 코일과 자석으로 전류가 흘러 힘이 발생하여 렌즈를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주로 동영상에 적용된다.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를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의 움직임을 특징점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특징점은 주위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 회전해도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특징점을 찾아 보정하면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데,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은 더 오래 걸린다. 보정 과정의 회전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나는데 잘라내면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지고, 원래 크기를 유지하면 화질은 떨어진다.
- 주제 : 영상 안정화 기술인 광학 영상 안정화(OIS)와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25 | 중심 내용 파악하기      정답 : ①

4문단에서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프레임의 특징점을 이용, 보정하는 기술이고, 3문단에서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는 기술은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2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5문단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고 했으므로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 ④ 2문단에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카메라가 흔들려 ‘빛의 세기가 변’할 때 OIS 기술이 작동되므로, 보정 기능(OIS 기술)이 없다면 영상이 흐려진다.

## 26 | 세부 내용 이해하기

정답 : ②

2문단 ‘자이로 센서가~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를 통해,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맞히는 영상’이 아니라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3문단의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의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하여 렌즈를 이동시킨다.
- ④ 4문단의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에서 확인된다.
- ⑤ 2문단의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3문단의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7 | 내용 추론하기

정답 : ②

4문단의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에서 밝기 차이가 ‘클수록’ 유리하고,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에서 밝기 차이 변화가 ‘작을수록’ 유리함을 알 수 있고, 5문단의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를 통해 보정에 필요한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8 |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 ②

5문단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나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 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라고 했으므로 ㉠을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의 크기가 변했다면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 냈으므로’ 원래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4문단에 의하면, ㉠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이 아니라 ‘피사체의 모서리’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해야 한다.

- ③ 5문단에 의하면, ‘k, k+1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하여’,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라고 했으므로 ‘㉠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특징점 차이를 계산하여 보정한다.
- ④ ㉡은 DIS 기술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이다.
- ⑤ ㉡을 보면 ㉠이 OIS 기술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9~33] (사회)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

### 【지문 해설】

• **해제** :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특허권과 영업 비밀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되는데 최근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인데 각국의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그 배경이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화 될 때이고,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히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 연구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 있다.

• **주제** : ICT 다국적 기업의 지식 재산 수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과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

## 29 | 세부 내용 이해하기

정답 : ②

1문단에 ‘영업 비밀’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1문단에 의하면,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모두 ‘지식 재산’이라는 것이다.

- ③ 2문단에 의하면,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 ④ 3문단에 의하면, 로열티 지출의 결과로 법인세가 부과될 자회사의 이윤을 최소화하여 법인세를 줄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4문단에 의하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이다.

### 30 | 핵심 내용 이해하기

정답 : ⑤

2문단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오답 피하기

- ① 1문단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로 볼 때 디지털세와 지식 재산 보호는 별개의 문제이다.
- ② 2문단 ‘법인세’가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3문단 마지막 문장 ‘어떤 국가들은~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를 통해 ‘디지털세’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4문단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디지털세’가 아니라 ‘법인세’이다.

### 31 | 내용 추론하기

정답 : ④

3문단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B국의 자회사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A국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여’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보기>의 가설처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 때,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을 낮아진다.

오답 피하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많을 수 있으나 제반비용을 고려하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아서 이윤이 적게 나게 하여 법인세 부담을 낮춘다.
- ⑤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

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32 |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 ③

S국에서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A]에서 설명한 접근 비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낮추고’ 싶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A]에서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라고 했으므로,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랄 것이다.
- ② [A]에서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된다고 했으므로, S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S국은 <보기>에 따르면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다. [A]에서 특허 보호 정도는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 가장 낮은 소득 수준 국가,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의 순서로 점점 강화된다.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가 되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질 것이고,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더 높아진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인다면, 유인 비용은 감소하고, 접근 비용은 증가한다.

### 33 | 문맥상 바꿔 쓰기

정답 : ③

㉓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인데, B국의 자회사에서 A국의 자회사로 로열티를 지급하여 B국 자회사의 이윤을 최소화하므로,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윤을 ‘늘린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법인세율이 높은 B국의 자회사에서 이윤을 최소화하여 법인세를 줄였으므로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고 볼 수 있다.

- ② B국의 자회사에서 A국의 자회사로 로열티를 지급하여 B국의 이윤을 최소화하므로,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고 할 수 있다.
- ④ B국의 자회사의 이윤이 최소화되었으므로, 법인세도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므로, 제반 비용도 증가한다.

[34~37] (현대 소설)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지문 해설】

- 해제 : 농촌 마을에서 반푼이로 취급받는 가난하고 어리석은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를 약간의 과장과 골계를 섞어 재미있으면서도 슬프게 그려낸 작품으로, 각종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메말라 가는 인정을 통해 삶의 어두운 면을 그리고 있다. 또한 황만근과 달리 기만적인 '이장'을 통해 위선적인 사람들을 풍자하는 내용도 보이고 있다.
- 주제 :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한 인간의 긍정적인 모습

34 |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 ②

㉠은 민씨가 황만근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 내용을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서술하는 내용이다. 서술자는 황만근이 토끼에게 말한 소원인 “우리 어무이가 팔죽 할 마이걸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는 발화의 의미를, 이야기를 들은 민 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을 통해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 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을 통해서 민 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황만근이 한 말을 민 씨가 자신의 표현으로 옮겨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과 ㉡을 삭제해도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의 기본 서사 구도는 그대로 파악된다.
- ④ ㉠과 ㉡은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 자체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고 있다.
- ⑤ ㉠은 황만근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민 씨의 말투로 다시 서술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한편 ㉡은 민 씨가 황만근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서술자 입장에서 다시 서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5 | 소설 속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 ⑤

㉠은 주먹밥 덩어리를 먹다 목이 막혀 죽을 뻔한 어머니가 주인공(황만근)에게 물을 떠 오라고 요청한 뒤 주인공이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달려간 공간이다. 우물을 어머니의 요청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러 간 공간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황만근이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나 대결하고 승리하는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을 보여 준다.
- ② 황만근은 여우 고개에서 집이 있는 '마을'로 향하고 있다. 마을은 황만근이 복귀해야 하는 일상적 공간이다.
- ③ '주변'은 황만근이 지난 밤 거대한 토끼와 대결을 벌인 공간으로 거대한 토끼의 흔적인 '토끼털'이 남아 있는 곳이다.
- ④ '마당'에서 황만근은 어머니를 부르지만 아무 기척이 없어 불안함을 느끼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황만근이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감지하는 공간으로 적절하다.

36 | 맥락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 ④

[A]의 '이야기'는 황만근이 경험한 기이한 체험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된 내용이다. [B]에서는 [A]의 '이야기'의 일부에 해당하는 '여우 같은 마누라가 생기기'를 바랐던 황만근의 소원이 토끼의 말대로 삼 년이 지나 실현되자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음이 제시되어 있다. [B]의 토끼의 '말'은 [A]의 황만근이 전한 '이야기'의 일부로 토끼의 '말'의 실현으로 황만근이 전한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여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A]에서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고 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를 통해 '이야기'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③ [B]에서 '말'을 처음 전한 황만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어떤 처녀(새로운 인물)의 등장에 따

른 것이다.

- ④ [B]에서 ‘말’의 실현에 대한 공동체의 확신은 드러나 있지 않다.

**37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 : ⑤**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내는 것은 어머니가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났음을 보여 주는 일이다. 이는 황만근이 토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토끼를 풀어 주는 대가로 약속받은 세 가지 소원 중 ‘어머니가 팔 죽할뻔같이 오래 사’는 소원이 실현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토끼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감을 뽐지만 이는 황만근을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내는 것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가 아니라 토끼의 소원 들어주기로 이해해야 적절한 감상이 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황만근은 ‘거대한 토끼’와의 겨루기를 통해 소원을 성취했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민담의 일반적 특성인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
- ②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행위는 <보기>에 제시된 민담의 언어적 주술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③ 황만근의 ‘나는 인자 죽었다’라는 위협적 발언을 통해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사건은 ‘위기를 극복하여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는 <보기>의 민담적 특징과 연결된다.
- ④ 신이한 존재와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한 황만근이 오히려 신이한 존재에게 ‘바보 자식야’라고 말함으로써 신이한 존재와의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8~40] (고전 시가) 정철, ‘관동별곡’**

**【지문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작가가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된 후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며 그 경치에 대한 감탄과 정감을 노래한 가사로, 관리로서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우국, 연군, 애민의 정과 개인으로서의 풍류사이에서의 갈등을 꿈을 통하여 해소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감탄사와 생략법과 대구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금강산과 관동 팔경의 정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우리말을 시적으로 사용하는 작가의 뛰어난 문장력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우리말의 유창성과 독특한 묘미를 살리는 표현이 많아 가사 문학의 백미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김만중은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동방의 이소(離騷)’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38 | 표현상 특징과 정서 파악하기**      **정답 : ③**

‘개심대’에서 ‘중향성’을 바라보며 만이천봉우리를 헤아리는 선경이 제시되고 봉우리마다 멋진 맑고 깨끗한 기운에 대한 예찬과 그 기운으로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우국지정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진혈대’로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자연에 대한 태도는 예찬으로 동일하다.
- ② ‘진혈대’에서는 금강산의 진면목에 대한 예찬이, ‘불정대’에서는 십이폭포의 장관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으므로 이미지의 대립이나 내적 갈등은 없다.
- ④ ‘화룡소’에서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⑤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 이동경로를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어’라는 표현을 통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사상이 빠르게 전개된다는 표현은 맞지만 이동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9 |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정답 : ②**

봉우리를 ‘백옥’에 비유하여 백색의 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 ‘동명’을 박치는 듯하다고 하여 역동적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의 영속성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봉우리를 ‘부용’을 꽃고 ‘백옥’을 묶은 듯하다는 구절은 산봉우리를 연꽃이나 백옥의 모습으로 묘사하여 시각적으로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 ③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고 있다는 표현은 산봉우리가 동해 바다를 박차고 일어나

는 표현은 산봉우리가 동해 바다를 박차고 일어나 북극을 떠받치는 웅장한 느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④ ‘하늘로 날거든 뛰지나 말거나, 섰거든 솟지나 말거나 할 것이지’의 부분은 변화무쌍한 산봉우리의 모습을 활유법, 대구를 사용하여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 ⑤ ‘고갯는 듯’은 상태, ‘박차는 듯’은 동작을 표현하며 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 40 |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 :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과 자연의 미가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또한 천지가 자연이 되었겠지만 이제 와 보니 유정하구나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천지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물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혈망봉’을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부분에서 ‘이상적 인간상’이 드러나 있다.
- ② ‘더 고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부분에서 우국지정을 느끼며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폭포를 ‘실’이나 ‘베’라는 구체적 사물을 이용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하였다.
-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이 중국의 ‘여산’보다 낮고 한 것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의 여산 풍경(와유)보다 실제로 본 금강산의 풍경(원유)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다.

#### [41~45] (갈래 복합) (가) 작자 미상, ‘전우치전’ (나) 최동훈, ‘전우치’

##### 【지문 해설】

##### (가) 작자 미상, ‘전우치전’

- 해제 :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이었던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한 고전 소설이다. 전우치는 도사를 만나 선도(仙道)를 배워 탐관오리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생고를 고발하는 등 사회의식이 작품의 밑바탕에 깔려 있으나,

황당무계한 환술(幻術)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공상성이 짙은 단점도 지니고 있다. 서사 구조면에서는 일대기적 구성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전우치의 행적을 삽화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주제 : 전우치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백성을 위한 의로운 활약

##### 【지문 해설】

##### (나) 최동훈, ‘전우치’

- 해제 : 이 작품은 고전 소설 ‘전우치전’을 재창작하여 만든 영화의 시나리오 작품이다. 전우치는 당대 최고의 도인 천관대사의 망나니 제자로, 둔갑술로 임금을 속여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뒤 천관대사를 살인한 범인으로 몰려 그림자에 봉인된다. 2009년 봉인에서 풀려나 요괴 사냥을 맡게 된 전우치는 우여곡절 끝에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현대에 머무르게 된다. ‘전우치전’과 마찬가지로 환술(幻術) 등 초현실적 내용이 주를 이루는 오락영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주제 : 영웅 전우치의 활약

#### 41 | 특정 인물 파악하기      정답 : ①

‘화담’이 ‘전우치’를 꾸짖으며 말하는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라는 대사에서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끄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영주산에서 선도를 함께 닦자고 화담이 먼저 제안하였다.
- ③ 전우치는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였으나 화담이 이를 알고 먼저 변신하여 전우치를 제압하였다.
- ④ 영주산으로 향하고 그 뒷일은 알지 못한다 하였으니 구미호를 퇴치하고 나라를 안정시켰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⑤ 화담이 전우치와 약속 여행을 위해 나타난 것이다.

#### 42 | 일반 영웅 소설과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 ②

일반적 영웅 소설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지만 ‘전우치’는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임금과 조정을 희롱하고 있으므로 충을 중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 43 | 작품 간 비교하기      정답 : ④

전우치가 왕과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

**42 | 일반 영웅 소설과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 ②**

일반적 영웅 소설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지만 ‘전우치’는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임금과 조정을 희롱하고 있으므로 충을 중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43 | 작품 간 비교하기**      **정답 : ④**

전우치가 왕과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맞지만, (나)에서 돌아올 것을 예고하지는 않았다.

- ①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가 [A]에서는 명령형을 통해 근엄하게 말하고, (나)에서는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 참”등을 통해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② 전우치가 황금을 요구한 이유가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해서, (나)에서는 함경도 기근 지역을 위해서이므로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는 큰 변을 당할거라 위협했고 (나)에서는 하늘이 7배 70배 700배 갚아줄 것이라 보상을 약속했다.

**44 | 인물 간 갈등 양상 이해하기**      **정답 : ⑤**

왕의 손짓으로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했지만, 그 후 전우치가 손짓으로 일방적으로 연주를 바꾼다. 따라서 왕과 전우치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우치가 왕을 농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 갈래별 특징 파악하기**      **정답 : ④**

㉔은 궁궐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표현하는 부분이므로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을 느껴지게 하려면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며 촬영하는 ‘로우 앵글 샷(양각)’을 주로 사용한다.
- ②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 표현하는 ‘클로즈업’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 왕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 ⑤ 인물이 특정 정서를 지속적으로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물의 표정과 상대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끄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해설 동영상 보기]**

이번 시험의 해설 동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